



자태 뽐내는 무등산 철쭉

9일, 늦재에서 비림재를 지나 토끼등까지 1.5km에 이르는 무등산 일주도로에 붉은 철쭉이 만개해 장관을 이루고 있다.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예쁘게 피어 있는 철쭉을 감상할 수 있는 꽃길인 무등산에서 또 하나의 명소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초조하다, 여수엑스포

### 2년 앞두고 교통·숙박·참가국 유치 부진...선거에 밀려 무관심도

12일 2012 여수세계박람회(이하 여수엑스포)가 2년 앞으로 다가온다. 하지만, 도로와 숙박시설 등 박람회 성공개최를 담보할 기반시설이 아직까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데다 참가 의사를 표시하는 국가도 적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SOC 등 기반시설 확충, 지자체=극심한 경기 침체에다, 지방선거까지 맞물리면서 박람회 관심 순위

에서 뒷전으로 밀려나 있는 실정이다. 특히 박람회장까지 접근성을 보장할 교통대책은 좀처럼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의 지난 2008년 말 운영 결과, 확충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된 '월례~낙포' 구간(연장 2.6km) 도로 확충 사업은 아직까지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다. 이 구간은 여수국가산단 진입도로와 연결돼, 박람회 기간 중 관람객의 26%에 이르는 영남권 방문객들이 이용하게 될 핵심 기반시설이다.

여수시내 도로 확충 사업도 지자체가 박람회 교통량 해소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 여수시내 '터미널~박람회장 확장사업(연장 2.8km)'과 '석창교차로 입체화사업(연장 1.05km)'은 예산이 없어 시작도 못한 상태다. 터미널~박람회장 확장사업의 경우 396억원의 예산이 필요하지

만 정부가 지원 불가 입장을 밝혔고, 전남도도 '여수에 지원되는 SOC 예산이 많다'는 이유로 기피하는 등 떠넘기기로 일관하면서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참가국 유치도 저조=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이날 현재까지 공식 참가 의사를 밝힌 나라는 50개국이다. 참가 대상국은 지난해 36개국에 그쳤고, 올해도 현재 14개국만 참가 의사를 밝혔다. 이 때문에 유치 대상국들을 상대로 한 홍보·지원 활동이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조직위는 2009년 50개국, 2010년 50개국 등 100개 국가를 유치 목표로 내세워 왔다.

한편 전남대 지역사회발전연구소와 여수·광양만권발전포럼은 12일 전남대 여수캠퍼스에서 '여수세계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 준비상황을 점검한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학교설립 56주년 (1954~2010)  
믿음, 소망, 사랑으로  
키워달라 세상을 만드는  
젊은 지성인과 교육의 요망!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광 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 담양의회, 광주 편입 결의

### 군수후보들도 찬성

담양 군의회가 담양군을 광주시로 편입해줄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담양군수 후보들도 이에 찬성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관련 기사 3면〉

담양군 의회는 10일 오후 열린 제 205차 임시회에서 '광주광역시 담양군'으로의 행정구역 변경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양대수 의장 등 8명의 군의원은 결

의안에서 "광주와 전남이 분리된 뒤 광주시가 주변인구를 점차 흡수하면서 140만이 넘는 거대도시로 발전했지만, 담양군은 일자리와 교육문제 등으로 인구감소가 지속되고 있다"고 전제하고 "정부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즈음해 광주시 담양군으로의 행정구역 변경을 촉구 결의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담양 고서·창평·대덕·수북·봉산·대전면은 이미 오래전부터 광주를 생활권에 두고 있고, 전남 북부권의 지리적 위치와 편향된 발전

정책에 따라 지역발전이 큰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며 행정구역 변경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번 선거에 나서는 민주당 최형식, 무소속 김용주 담양군수 후보도 담양군의 광주시로의 행정구역 변경에 찬성하고 있으며, 현재 담양 시민사회단체 중심으로 구성된 '광주·담양 통합추진위원회'가 주민 1만 7000여 명으로부터 광주·담양 통합 찬성 서명을 받아놓은 상태다.

/최권일기자 ki@kwangju.co.kr /중부취재본부=노정훈기자 cjob17@

## 교육감 후보 모두 "교원평가 해야"

### 광주·전남 기자회견 시교육감 후보 토론회

6·2지방선거 광주시교육감 예비후보들은 무상급식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명단공개·교원평가 등을 놓고 대상과 방법·시행시기 등에서 뚜렷한 시각차를 나타냈다. 〈관련기사 3면〉

다만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당론이 엇갈린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당론을 따르는 경향이 강했다.

10일 오전 호남대학교 국제회의실에서 광주·전남 기자회견 초청으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한 안순일·이정재·장휘국·김영수·고영을 등 시교육감 예비후보 5명은 민주당이 당론

으로 내세운 전면 무상급식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했으나, 구체적 방법에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안순일 후보는 "현재 광주시교육청의 무상급식 지원율은 전국 1위"라고 전제한 뒤 "임기 내에 무상교육 대상인 초·중학생의 전면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재·고영을 후보는 유치원과 초·중·고교 전면 무상급식을, 장휘국·김영수 후보는 초·중·고교의 단계적 무상급식을 제시했다.

또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의 전교조 명단 공개에 대해서는 김영수 후보가

"학부모 알권리 차원에서 공개해야 한다"며 "전교조도 스스로 공개해 본인들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머지 후보들은 "교사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며 명단공개 불가라는 민주당의 당론에 동조했다.

후보들은 교원평가에 대해서는 "제도적 개선은 전제로 찬성한다"며 의견일치를 봤다.

이정재 후보 등은 "교원평가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 교사를 평가하는 방식은 옳지 않다"면서 "교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흑산도 2015년 하늘길 열린다 경비행장 건설키로

이르면 2015년 신안의 흑산도에 경비행장이 들어서게 된다.

10일 신안군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부는 흑산도에 관광객이 연 20만명이 되는 등 수요가 많고, 입지도 뛰어나 2015년까지 경비행장 건설한다는 목표로 타당성 조사 등을 추진하고 있다.

경비행장 부지로는 흑산면 예리 일원 75만㎡가 유력하며, 40~50

인승 경비행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1200m 길이의 활주로를 만들 예정이다.

흑산도는 이미 경비행장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 울릉도와 달리 입지가 평평해 공항 건설비가 울릉도(6400억원)의 7분의 1 수준(900억원)일 것으로 추산된다.

신안군은 자체 타당성 조사를 바탕으로 정부에 흑산도 공항을

건설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국토부는 이를 바탕으로 조만간 예비타당성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타당성 조사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오면 2015년에는 비행기를 타고 흑산도에 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조완원기자 wncho@

5월 호남예술제  
미술·작문대회  
기간: 2010.5.6(화)~5.13(화)  
신청마감: 2010.5.24(월)  
발표대회: 2010.5.27(목, 28(금))  
문의: 광주광역시 문화재단